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자연이 보여주는 정직한 순리는 우리 농부들에게 단순한 절기를 넘어 삶의 철학이 됩니다. 본래 농사란 단순히 땅에 씨를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분별과 정돈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 가장 먼저 좋은 종자를 가려내고, 겨울내 흙 속에 숨어있던 묵은 잡초의 뿌리를 단호히 도려냅니다. 아무리 귀한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아도, 잡초가 특세하여 양분을

리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정을 나뉘은 마을 공동체가 반복과 불신으로 분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큼니다. 하지만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우리가 이번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행사를 넘어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우리 농촌의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치솟는 농지세 가격과 기후 위기,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저야 할 위치에서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세력은 우리 농토를 망치는 지독한 잡초와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연이나 혈연, 혹은 달콤한 부정적인 유혹에 편승하는 행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는 특정 정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살리는 길인지 분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정

춘분의 들녘에서 묻는 농심, "지역의 미래를 일굴 참된 청지기를 기다리며"

긴 겨울의 완고함을 뚫고 드디어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춘분(春分)이 지났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햇살이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내리쬐는 이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르침을 건넵니다. 지난겨울, 콩콩 얼어붙은 대지를 보며 '과연 봄이 올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 땅속의 생명들은 기지개를 켜 준비를 단 한 순간도 쉬지 않았습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봄을 예비해온 그 생명들이 마침내 고개를 내미는 모습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가로채면 곡식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마주한 엄연한 현실 또한 이러한 농사의 이치와 조공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 년 농사를 설계하고 밭을 일구는 영농 시기가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일정과 맞물려 있어, 농심(農心)의 영민한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농사일로는 볼 수 없는 농민들에게 선거의 소란함은 큰 부담입니다. 자칫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다양한 목소

고령화된 노동력은 더 이상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은 화려한 수식어를 늘어놓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농민의 것부터 손등을 이해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참된 청지기'여야 합니다.

성경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공간에 넣으라(13:30)"고 경계하십니다. 공동체의 안녕보다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고, 책임

직한 일꾼이 존중받고 부정함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공의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사 32:17)"는 말씀처럼, 우리가 농부의 심정으로 정직하게 사회의 잡초를 가려낼 때 비로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참된 봄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확신하며,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일구는 농부의 자세로 이 찬란한 춘분의 계절을 맞이합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연구소 이사장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재원기독교대학 공동대표

▶**지나호에 이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역이며, 그 가운데 특히 가난한 백성을 위해 더욱 마음을 쏟으시고 노력을 기울이시며 돌보시는 사역이다. 이는 마치 목자의 일이 바로 양들을 돌보는 것

을 갖지 못해 빛 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자 또한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돌보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빛 탕감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부채 탕감-2

이며, 그 가운데 특히 힘없고 약한 양들을 위해 더욱 마음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 돌보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빛을 갖지 못해 빛 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가난한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일하신다.

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 14:31).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것을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므로 제7년인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이 진 빚을 모두 탕감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은, 빛을 갖지 못해 빛 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위해 마음을 쏟으시고 노력을 기울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도 해방을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안식년의 빛 탕감은, 빛

곧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빛 탕감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 15장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위하여 해방을 선포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세상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의 시대 이후 주변의 강국들에게 국권을 찬탈당한 대한제국과 일본강점기를 보내고 급기야 1950년 6.25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시작한 가난한 시절 이후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1차 산업인 농업국가에서 75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K-팝과 푸드, 문화로 전 세계를 뒤흔고 있고 해양조선과 방탄 무기로 세계 5위의 강국으로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한 한류의 노래가 계속 성장하여 'BTS'의 광화문 앞에서 '아리랑' 공연으로 우리나라 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증명하고도 남는다. 시대가 바뀌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와 휴머노이드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번 BTS '아리랑' 공연의 흥경을 보면 군복무를 마친 멤버가

합류함으로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여 월드투어를 하는 공연이다.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 82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는 41년 열리는 공연이 벌써 전석 매진되었다 한다. 예매 사이트에는 '50만명 대기중'이라는 상황이고 티켓팅을 성공한 사람들의 환호하는 영상이 난리다. 티켓 가격은 한국공연 기준 19만 8천원에서 26만 4천원인데 미국의 재팬매 시장에서는 스펀포드 스타

375달러로 뛰기도 하고 빌보드는 BTS가 이번 '아리랑' 투어로 10억달러 한화로 1조 4천5백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 한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큰 발전이고 성장이다.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공 지능'이라는 말이다. 이 AI의 발전 속도가 가파르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피지컬 AI, AGI, 그리고 인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겁낼 필요는 없다. 이제껏 잘 적응하며 살았는데 잘 적응하며 살면 된다.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시간과 기계를 잘 쓰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 변화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다. 놀라운 나라의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모험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해 본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지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2 저자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다음 공연 티켓이 5,700만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8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15만장의 표를 놓고 110만명이 몰려들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공연을 돌려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도 한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행 여행은 전주 대비 155%, 브라질 상파울로행은 검색량이 600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 공연장 근처의 호텔들은 60-80달러이던 숙박료가

간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생산과 활용을 할 것이다. 2009년 스마트폰의 출현은 인류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었다. 누구나 일어나서부터 잠 들 때까지 쳐다 보는 기계가 되었다. '유튜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로운 것 또 옛 추억들을 꺼내어 주고 미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새로운 엄청난 정보를 주는 톨로로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이 되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벚엘교회 비전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

1. 공 사 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벚엘교회 비전센터 신축공사
2. 발 주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벚엘교회
3. 공 사 개 요	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22-5 외 2) 대지면적 : 1,561.50㎡ 3) 건축면적 : 533.05㎡ 4) 연 면 적 : 2,995.49㎡(906.13평) 5) 규 모 : 지하 1층 지상 6층 6)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부분 POST TENSION
4. 입 찰 방 법	제한 및 지명경쟁입찰
5. 공 사 예 정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현 장 설 명 회	일자 - 2026년 4월 07일(화) 오후 2시 장소 - 광주벚엘교회 세미나실(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21-1)
7. 제 출 서 류	1) 회사 지명원 2) 소정양식(교회서류)--당일작성 3)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를 확인서 (대한건설협회발행) 4) 신용평가서 (한국신용정보발행) 5) 건설공사실적(최근 3년간) 확인서 (대한건설협회발행) 6)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원 7) 법인사용인감 지참
8. 입찰 및 낙찰자 발표	1) 입찰마감 :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5시까지 (일부발하여 제출) 2) 낙찰자 발표 : 개별통보
9. 사전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점수 순위에 의해 지명(일부 제한)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 타	1)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함. 2) 문의전화 : (주)다솔CM건축사사무소 02)2203-1663 3) 교회전화 : 062)367-1004

2026. 04. 0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벚엘교회 비전센터건축위원회 위원장 문정수 장로

건축물 유지보수 외부 · 외벽공사전문

옥외간판 · 십자가 · 외벽 유리청소 · 방수, 페인트

시외 장거리가능 / 건물가치와 수명연장

1톤 · 3톤 · 5톤 굴절스카이 전차종 임대 가능

경미한 공사 환영

건축물외부, 외벽공사
안전장비 고소작업 스카이라와
전문인력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린텍 손전화 010-3641-0675 김종운집사